

한국타이어, 내수시장 공략체제 가동

2004년 대대적 임원인사 단행 ... 사상최대 수출 포상으로 승진발령도

한국타이어가 연구기술본부의 김광현 상무와 국내영업본부의 진승도 상무, 하남법인장인 최진욱 상무, 해외 영업본부장인 조현식 상무를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을 포함한 임원 11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광현 상무



조현식 상무



진승도 상무



최진욱 상무

한국타이어(대표 조충환)는 2004년 1월1일자로 김광현 상무, 진승도 상무, 최진욱 상무, 조현식 상무를 부사장으로, 윤재룡 상무보, 조현범 상무보를 상무로, 이상일 부장, 안명현 부장, 이호진 부장, 박승규 부장, 송권호 부장 등을 상무보로 승진 발령하는 등 대규모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2004년 인사의 특징은 미래 경쟁력인 R&D 분야와 침체된 내수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김광현 상무와 진승도 상무를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으며,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하남법인장 최진욱 상무와 조현식 해외 영업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승진 발령과 더불어 중국부문 생산 판매활동 강화와 지원부문 보강을 위해 김덕재 인사담당 상무를 중국본부의 인사·구매 담당 임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대표이사 조충환 사장을 비롯해 중국과 연구기술 부문 사장 2명, 부사장 5명, 상무 9명, 상무보 17명의 경영진을 구성하게 됐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자회사인 대화산기 사장에 박기현 부사장(생산부문장)을 전보 발령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7>